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5.21.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9/10	1	2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최은수,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안호림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9	-	-	2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1	-	-	13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이 시각 핫뉴스’는 주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기사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초반부 화면 구성이 다소 아쉬운데요, 여러 기사가 동시에 배열되면서 시각적으로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고, 화면에 작게 제시된 일부 기사 제목이나 내용은 식별이 어려워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기자가 화면을 터치하며 밑줄을 긋고 설명하는 방식은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터랙션이 정보 전달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집중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직관적인 전달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호림 위원)	안건을 수용하여 포맷을 위원님 의견에 따라 개선하여 방송에 적용 <26.5월 조치>	‘26.4월
기타	연합뉴스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코너가 검색되는데, 실제 링크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최은수 위원장)	링크 바로 수정 조치 및 완료 <26.5월 조치>	‘26.5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위원별 상이)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대운변호사	-	18.7.1.~26.6.30
안지연	1989.06.27	(현)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	23.02.01~27.01.31
김경아	1977.04.26	(현)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26.04.01~28.03.31
김정원	1993.03.07	(현)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	25.09.01~27.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6. 01. 01.~ '26. 12. 31.)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선임기간)
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25.1.1~'26.12.31
부위원장	김광석	현)충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25.1.1~'26.12.31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25.1.1~'26.12.31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25.1.1~'26.12.31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25.1.1~'26.12.31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25.1.1~'26.12.31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25.1.1~'26.12.31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 학회	문화 단체	'25.1.1~'26.12.31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25.1.1~'26.12.31
위원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LG헬로비전 방송채널심의위원	한국방송학회	언론 단체	'26.1.1~'26.12.31
위원변동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연합뉴스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코너가 검색되는데, 실제 링크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최은수 위원장)	의견 수용하여 오류 수정	○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425회 : 틀림이 아니라 다름 김효섭 수정 2026-05-03 20 먼저 오티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째. 방송에서 소개된 재산 관리 신탁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부모나 전문가, 교사의 시선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소회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더 비중 있게 담아낸다면 '다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부위원장)	매년 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제작에 임했습니다. 자칫 무겁고 예민한 소재로 편견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기획 초기부터 해당 협회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 일상 속 오티즘에 대한 오해와 필요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오티즘을 비롯한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들의 사후 남겨질 장애 자식의 홀로서기입니다. 신탁 제도는 정부와 사회복지사들의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면에서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사업 초기 단계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장애인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학령인구부터 자립 청년까지 연령별 오티즘 대상자를 다루면서 각 시기별 필요한 지점에 대해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바리스타를 통해 그들이 보호받는 약자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지닌 사회 구성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오티즘을 비롯한 발달 장애 특성상 사회 진출이 쉽지는 않음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현실입니다. 교육과 회사 설립 제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공존 시스템이 잘 정착된 우수사례 발굴은 물론 정책까지 만들어지도록 관심을 가져갈 것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오티즘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망..."처벌만으로는 부족" 박준혁 기자 입력 2026-04-21 00:46:38 위의 사건은 병든 가족의 현실을 목격하는 큰 충격의 뉴스였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친부에 의해 살해된 양주의 3세 아동, 친모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된 6년전 시흥의 8개월 된 아동, 그리고 친모가 살해한 여수의 4개월 된 유아 등, 친부와 친모에 의해 피해자가 된 아동사망 사건들이었습니다. 학교/학부모 간 법적 다툼은 갈등이 최고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상대에게 폭력이라고 인식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학교 훈육에 대한 상호 불신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가 내 자녀만 보호하려는 맹목적 신념도 문제이지만, 학교 훈육도 학부모가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학부모와 학교간 신뢰구축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행동 검진목표 작성과 영상기록 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과정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속보도할 예정입니다.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보도	(경제면 : '5060 퇴직금 노렸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잘못된 정보나 이해상충(광고·협찬)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손실 사례 발굴 등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SNS 알고리즘이 과장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구조, 플랫폼의 광고·표시 책임, 규제 사각지대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계순 위원)	유튜브, SNS 콘텐츠를 활용해 고령층을 노려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로 만든 가짜 의사가 유튜브에서 약 광고와 추천을 하는 등 병폐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경쟁 지난해 하이닉스가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하이닉스 발 성과급 경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길 경우 직원 1인당 성과급이 7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실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7일 있었던 저희 회사의 <경제 심포지엄> 행사에 맞춰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제 심포지엄의 주제를 보다 폭넓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을 둘러싼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환율시장 대응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지금 K컬처의 세계적 확산, 반도체 호황, 방산업체들의 활약 등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과를 어느 한쪽이 독식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과창출에 기여한 모든 경제주체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제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병수 위원)	아시다시피 이익 일정비율 배분 논란이 논리적 적정성이나 주주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바이오, 카카오 등 각 기업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지금도 관련 이슈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절한 성과 배분의 방식과 정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합뉴스tv의 유튜브를 PC를 통해 보면 메인화면에서 순서가 “실시간 스트림 ⇒ 생방송 중 ⇒ 6.3 지방선거 ⇒ 중동전쟁 ⇒ 무간다 ⇒ 다다를 인터뷰 ⇒ 이거 진짜예요? ⇒ 썸 속 뉴스 ⇒ 현장의 재구성 ⇒ 이 시각 주요뉴스 ⇒ 많이 본 뉴스 ⇒ PICK 뉴스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인 만큼 “이 시간 주요뉴스, 많이본 뉴스 등”을 상단에 올리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즉 무간다, 다다를 인터뷰, 이거 진짜예요? 등이 가벼운 주제인데, 이 시간 주요 뉴스 등보다 상단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위원)	<이 시각 주요 뉴스>는 현재시간 기준 눈여겨 볼 기사를 정리해 놓은 카테고리이고, <많이 본 뉴스>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급된 콘텐츠 중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모음집입니다. 두 카테고리의 영상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중요 뉴스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실시간 스트림>, <생방송 중> 카테고리 내용과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전쟁> 카테고리는 현재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이기에 전략적으로 연합뉴스TV가 특집 페이지 형태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무간다와 다다를 인터뷰, 이거 진짜예요?/현장잇슈는 타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소재가 아니라 연합뉴스TV 디지털센터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해주는 주요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뉴스> 영역의 <단독보도>처럼 다른 방송사가 뉴스 외 시사·교양·예능 프로그램들에 인용 제작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시사성이 높은 콘텐츠입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러한 여러 상황과 연합뉴스TV가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희수나 실시간 조희를 치열하게 경쟁사와 비교하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수시로 카테고리 주제와 순서를 바꾸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여 유튜브 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민주, 영남 표심공약 박차...다음주 선대위 체제 전환 정주희 기자 입력 2026-05-04 18:41:47 저녁 뉴스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책임지고 지역 살림을 도맡을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데, 지나치게 정당간 대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들 공약에서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 기사를 찾기 어려웠고, 양자간 주장과 대결구도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하면서 이른바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안호림 위원)	연합뉴스TV는 지방선거 보도에 있어 각 정당의 공천 과정부터 팩트에 기반한 균형 보도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책 공약 등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뉴스 제작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입체적인 선거 보도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하겠습니다.	○		
보도	[6·3상황실] AI가 분석한 부산 현안...각 후보의 맞춤 공약은 팽재용기자 2026-05-08 16:15 5월 8일 부산 시장 선거 관련기사에서는 부산의 현안과 이에 대한 전재수,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매칭시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 나오듯이 AI에게 질문하여 도출한 지역 현안입니다. AI가 뛰어난 도구이기는 하지만 AI의 답변이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캠프 관계자나 후보와 연락해서 이들도 AI가 지적한 이슈를 핵심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해당 제작물은 각 후보 캠프의 공약을 포함한 취재 사항을 기반으로 AI 분석틀을 이용해 키워드를 도출하는 형식의 기획물입니다. 분석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차원이지만, 직접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의 기본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선거 기획물은 충분한 사전 취재와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지, 그리고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떠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거방송보도의 궁극적 목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면 직접취재는 그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생각합니다. (안호림 위원)				
보도	[현장의재구성] 2026.5.8 정청래 “내란청산” vs 장동혁 “정권심판”... 표심잡기 경쟁 ‘활활’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불붙은 표심잡기 활동을 영상으로 잘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양당대표의 선거지원 활동을 영상과 함께 적절한 자막, 뉴스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섞어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시청자 입장에서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당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고심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4분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내기 위해 노력하심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시면 선거전 양당의 활동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비교하여 한번 더 제작해주신다면 시청자가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명희 위원)	각 당의 선거 지원 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면서도 최대한 균형감을 유지하며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방영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막과 표현에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비교, 분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특보] 트럼프, 연설 예고…종전협상 발언 '주목' 2026-05-08 20:21:48	대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단순히 두 나라간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 비롯한 나라 곳곳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란 전쟁 관련 뉴스특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전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뉴스특보 형식을 통해 주요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군사적·외교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한 점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거나 주요 인사의 발언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산 가능성과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함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 출연한 한 전문가의 경우 자세와 시선 처리가 다소 불안정해 시청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계속 움직이거나 고개를 기울인 상태로 발언하는 모습은 전달 내용에 대한 집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출연자에게 간단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쪽지 등을 통해 간단히 교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 이란 대담은 입체적인 대담으로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외교(봉영식)-군사(김영준) 전문가로 꾸렸고, 외교-군사 외에도 외교-경제 등 가급적 패널을 분야별로 한 분씩 두분 모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살펴보니 군사 전문가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께 나온 패널보다는 상대적으로 말투나 제스처가 좀 더 활발한 분으로 스타일의 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주신대로 시청자 입장에서 시선이 분산된다고 느껴지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해당 패널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시선처리 등이 조금 어색하면 현장 피디가 앵커를 통해 안내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교정해 진행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도	5월 7일 출발600 「예상 밖 '공과금 폭탄'...내든든전세 입주자 '분통'」 천재상 기자 해당 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든든전세' 사업으로 오산 지역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도요금과 난방비 등 공과금 부담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사례를 통해 한 달 수도요금이 9만	최근 전월세난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다각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원 가까이 부과된 상황을 보여주고, 업무용 오피스텔 특성상 가정용보다 높은 일반요금이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 시청자들이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입주민의 불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의 사전 설명 부족, 지자체 조례 개정 필요성, 입주민 공동 대응 움직임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공공주거 지원정책의 현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균형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LH가 공과금 체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보도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및 난방비 산정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표나 그래픽을 통해 비교해 주신다면 시청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LH든든전세 사업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공과금 체계와 관리비 부담에 대한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임태순 위원)				